

芝峰 李睟光의 文學批評

최 응*

1. 머리말

芝峰 李睟光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식 체재를 갖춘 문헌인 ‘芝峰類說’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학계에서 지금까지, 그는 ‘지봉유설’을 통하여 종래의 공리공담적인 성리학과는 다른 방법과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조선왕조 시대 실학의 학풍을 처음 개척한 선구자로서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아울러 그는 세 차례의 북경 왕래를 통하여 ‘天主實義’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것을 비롯, 서양문물을 도입한 선각자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도 받아오고 있다.¹⁾ 형이상학적 심성철학인 성리학의 관념적인 성격에 비하여 천문·인사·자연 등, 현실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실체를 온갖 종류의 수많은 서적들을 근거삼아 궁구하고자 했던 이수광의 실증적인 학문²⁾은 당시로서는 확실히 새롭고도 값진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수광에 대하여 지금까지 학계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자리매김은 지극히 공변된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지봉유설’을 비롯하여 이수광의 저술들에는 그대로 지나쳐 버릴 수만은 없는 귀중한 문학적 유산들이 담겨져 있다. ‘芝峰集’에 들어 있는 많은 한시는 당시 문인들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는 교양물이라

* 강원대학교 국문과 부교수

- 1) 이승녕, “지봉유설체제,” 지봉유설(경인문화사, 1970), pp. 7~8.
- 2)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자연현상에서부터 人事·서적·문학·언어에 이르기까지 3435조항을 논하였는데, 348家の 서적에 의거함으로써 실증적인 학문태도를 보였다.

는 점에서 제쳐 놓더라도, ‘지봉유설’ 20권 가운데 삼분의 일이 넘는 7권 분량이 시 중심의 문학에 관한 논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수광이 문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을 입증시켜 주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수광은 지금까지의 문학외적인 자리매김 뿐만 아니라 문학적 자리매김까지를 요하는 인물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문학적인 논의가 활발히 수행되고 그 결과가 집적될 때, 비로소 이수광에 대한 완전한 역사적 평가가 기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광에 대한 문학적 논의는 그 동안 몇 차례 시도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남만성이 ‘지봉유설 해제’에서 “옛날 우리나라에는 評論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芝峰類說>의 많은 詩文의 評은 우리나라에 評論이 존재하였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立證한다.”³⁾라고 하여 이수광이 문학비평가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해제라는 글의 성격상 더 이상의 깊은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졸고⁴⁾를 비롯, 김주한⁵⁾·신현윤⁶⁾·황의례⁷⁾들에 의하여 이수광의 시론과 시평의 일단이 분석·평가됨으로써 문학이론가 내지 문학비평가로서의 이수광에 대한 문학사적 자리매김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대상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와 소개라는 문헌학적 성과 이상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학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본 논의는 문학적으로 이수광에 대하여 타당한 자리매김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이수광의 문학비평을 본 논의의 주된 대상으로 한다. 이수광의 가장 중요한 저서가 ‘지봉유설’이고 ‘지봉유설’의 상당한 부분이 문학에 관한 논의이다. 그런데 그 논의의 대부분은 작품을 예로 들고 촌평

3) 남만성, “지봉유설해제,” 지봉유설 상, 세계사상교양전집 속10(을유문화사, 1975), p. 5.

4) 최 용, “조선중기시학연구,” 국문학연구 32, 서울대 대학원, 1975.

5) 김주한, “지봉유설연구—특히 지봉유설소재 문장부를 중심으로,” 영남어문학, 1975.

6) 신현윤, “이수광의 문학평론에 관한 연구,” 수도여사대 대학원, 1978.

7) 황의례, “이수광의 시론—주신론의 전개,” 태동고전연구 3, 1987.

을 가하거나 자신의 문학이론을 간략히 개진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작품에 대한 찬평과 문학이론의 간략한 개진을 현대비평으로 치환하면 실천비평과 원리비평에 해당된다. ‘지봉유설’에서의 문학적 논의의 이러한 형태 때문인지, “이수광은 문학의 전반적인 문제와 문학의 종류를 두루 다루었지만, 사실은 산만한 나열에 그친 편이었고, 문학의 독립적인 의의를 인정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허균의 경우만큼 선명한 조리를 갖추었던 것은 아니다.”⁸⁾라는 비판이 따르기도 하였지만, 문학의 전반적인 문제와 문학의 종류를 두루 다루었다는 사실에서 이수광은 원리비평과 실천비평을 아울러 행한 탁월한 문학비평가일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한층 제고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수광에 대한 문학적 자리매김을 위해서 그의 문학비평은 우선적으로 정밀하게 연구·검토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둘째, 이수광의 문학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다. 조선왕조 시대 대부분의 인물들이 문학을 ‘餘技’로 여겼던 바, 이수광이 문학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구명됨에 따라 그의 문학적인 논의가 산만한 나열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논리성을 지닌 것인지 판명될 수 있다. 문학을 전일하게 하는 자세에서 이룩되는 문학적 논의가 산만한 나열에만 그칠 수는 없겠기 때문이다.

셋째, 이수광의 비평의식을 살핀다. 우리나라의 문학비평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왕조 시대 전기에도 있었다. 곧 이수광 훨씬 이전 시대부터 이 땅에 문학비평은 존재해 내려 왔고, 의견상 비평의 유형은 흡사하더라도 시대에 따라 또는 인물에 따라 내재해 있는 비평의식에는 미묘한 차이점을 보여 왔다. 따라서 이수광이 무슨 의도로 문학비평을 행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은 그의 실천비평의 특징을 예견해 보는 것이기에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넷째, 이수광이 행한 문학비평의 유형과 내용을 고찰한다. 우리의 전통적인 문학이론을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성과⁹⁾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8) 조동일, 한국문학사상사시론(지식산업사, 1978), p.244.

9) 20여년의 연구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조종업·최신호·조동일·임형택·전형태·정요일·정대립 및 필자 등에 의하여 자료의 발굴·정리에서부터 이론의 특징, 가치 평가 및 사적인 흐름의 체계화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문학이론의 대강이 마련되고 해명되었다.

빈약하지만, 우리의 옛 비평에 대한 연구도 이제는 본래도에 진입하여 몇 개의 괄목할 만한 결실을 맺고 있는 실정이다.¹⁰⁾ 그러나 범위를 이수광에 한정시켜 놓고 보면 그의 문학비평의 실상이 체계화된 분석을 거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것이 가지는 문학사적 의의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의 옛 비평의 실상을 알게 해주는 자료 중에서 ‘지봉유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다. 질에 대한 정당한 가치 평가는 본격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간단히 언급할 문제가 아니지만, ‘지봉유설’에 담겨져 있는 문학비평의 양은 다른 인물 어떤 문헌에서도 쉽사리 찾기 어려울 만큼 많다. 그러므로 이수광이 행한 문학비평의 유형과 내용의 고찰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우리 옛 비평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진단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은 본 논문의 귀결점이 되는 동시에 이수광의 문학비평의 의의를 극명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중심부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의 주된 자료로 빈번하게 거론되는 ‘지봉유설’은 경인문화사에서 간행한 영인본¹¹⁾을 사용했음을 밝혀 둔다.

2. 문학관

1) 문학의 본질

문학의 본질을 인간의性情과 관련시켜 인식하려 했던 것은 조선왕조시대 문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수광도 예외는 아니어서 다음과 같은 말이 그 좋은 예가 된다.

a. 葉夢得이 이르기를, “시라는 것은 사물에 접촉할 때에 생기는 감흥에 불

10) 대표적인 연구 업적을 들면 다음과 같다.

이병한, 한시비평의 체제연구, 통문관, 1974.

전형대 외, 한국고전시학사, 흥성사, 1979.

전형대, 한국고전비평연구, 책세상, 1987.

11) 이 영인본은 崇禎 7년에 이수광의 아들인 이성구와 이민구의 노력으로 간행된 것인데, 뒤에 복간됨이 없이 散見되는 실정에 있다가 1970년 경인문화사에서 이승녕선생이 소장하고 있던 완본을 영인·출판함으로써 연구자의 손에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여 자신의 性情을 읊조리는 것이다(中略)”라고 했다. 이 말은 옳다.¹²⁾

- b. 文中子가 말하기를, “謝莊과 王融은 옛날의 성격이 약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글은 섬세하다. 徐陵·庾信은 옛날의 큰 체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글은 허탈하다. 劉孝綽은 비루한 사람이다. 그의 글은 음탕하다. 湘東王은 탐욕스런 사람이다. 그의 글은 지나치게 꾸민다. 謝朓는 얇은 사람이다. 그의 글은 가볍고 빠르다. 江總은 속이는 사람이다. 그의 글은 공허하다”고 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보면 문장이란 그 사람의 性情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하다.¹³⁾

인용문 a는 시의 본질을 인간의 성정과 관련시킨 것이긴 하지만, 시가 문학의 한 장르임을 감안한다면 인용문 b와 함께 모두 문학의 본질에 관한 언급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문학의 본질을 인간의 성정과 관련시켜 언급했을 경우, 그 眞意를 파악함이 필요하다. 논자에 따라서 그것은 문학이 도덕적인 것(예컨대, 심성수양·성정醇化)에 대한 의지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뜻도 되고, 그와는 달리 문학이 본원적인 것(예컨대, 우주·자연의 신비)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뜻도 되는 多意性¹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광의 경우, 앞에 든 두번째 인용문을 통해서 그 진의파악이 우선은 가능하다. 그는 성격이 약한 사람의 글은 섬세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글은 허탈하고, 비루한 사람의 글은 음탕하고, 탐욕스런 사람의 글은 꾸미는 것이 많고…등의 사실을 근거삼아 문장이 사람의 성정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따라서 이수광이 거론한 인간의 성정이란 인간의 마음의 진솔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12) 葉夢得曰 詩本觸物寓興 吟咏性情(中略) 此言是(李晬光, 芝峰類說, 卷九, 文章部二, 詩)

13) 文中子曰 謝莊王融古之纖人也 其文碎 徐陵庾信古之夸人也 其文誕 劉孝綽鄙人也 其文淫 湘東王貪人也 其文繁 謝朓淺人也 其文捷 江總諛人也 其文虛 即此觀之 文出於其人之性情審矣(上揭書, 卷八, 文章部一, 文評)

14) 이수광의 활동시기인 조선왕조 중기는 문학의 공리성에 치중한 주자학적 도덕주의 문학관과 문학의 본원성을 강조한 허균과 같은 문예지향적 문학관이 병존하고 있었던 바, 양자 모두 문학의 본질을 인간의 성정과 관련시켜 논하고 있는 데에 연유한다. 전형대 외, 한국고전시학사(홍성사, 1979), pp. 264~273. 참조.

그렇다고 해서 이수광은 문학이 인간의 내면세계만을 진솔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다.

시는 그 사람의 性情에서 나온다는 말은 오래이다. 賈島의 시에, “벼를 심는데 흰 물을 갈고, 댈나무를 하기 위하여 푸른 산을 찍는다”라고 하였다. 그에 한 치의 땅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문학은 인간의 성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작품을 보면 작자가 처한 환경까지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인용문은 나타내 준다. 곧 문학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진솔하게 반영하는데만 국한되지 않고 외부환경을 사실성있게 반영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다음의 인용문으로 더욱 타당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대체로 문장이란 것은 시대와 함께 상승도 하고 하강도 한다. (中略) 배우는 사람들은 漢나라와 唐에 대하여 그 시와 문을 보고 나서 나아가 그 시대를 논한다면 辨證과 실명을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알아질 것이다.¹⁶⁾

중국문학에서는 일찍부터 문학의 모범으로 한나라의 산문과 당나라의 시를 꼽아 왔다. 그런데 그 까닭을 이수광은 그러한 작품이 산출되었던 시대에서 찾고 있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문은 시대와 함께 상승도 하고 하강도 한다”고 했음이 그러하다. 즉 이수광은 시대를 문학창작의 모태 또는 산실로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용문의 “시와 문을 보면 시대를 알 수 있다”라는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시대를 문학창작의 원천으로서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보아진다. 문학은 시대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 인용문은 풀이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때 이수광은 문학을 사람의 성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아울러 시대의 모습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주자학을 국시로 삼았던 조선왕조 시대 특히 조선전기에서 증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통적인 문학이론의 구조를 이루어온 것은

15) 詩出於性情尙矣 賈島詩曰 種稻耕白水 負薪斫青山 其無寸地可知(李陞光, 前揭書, 卷十四, 文章部七, 詩藝)

16) 夫文章與世升降(中略)學者於漢唐 觀其詩與文而尙論其世 則不待辨說而自知矣(上揭書, 卷八, 文章部一, 文)

주자학적 도덕주의 문학론이었다. 그리고 이 문학론은 공리적 효용론으로 그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따를 때 문학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원리를 담은 그릇으로 인식된다.¹⁷⁾ 곧 개인의 덕성을 도야시켜 사회교화, 나아가서는 국가의 안녕을 도모하려 했던 주자학의 관념적 속성이 그대로 반영된 문학관인 것이다.

이수광은 1625년 “條陳懋實箚子”를 올려 실용·실질·실증·민본정신을 바탕으로 정치에 입할 것을 왕(仁祖)에게 진언한 바, “차자의 뜻이 오로지 實에 힘쓰에 있다”¹⁸⁾라는 답을 들을 정도로 자타가 인정하는 務實主義者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후세 실학의 길을 열 수가 있었고, ‘지봉유설’ 같은 실학서를 저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에게 관념적 성격을 지닌 주자학적 도덕주의 문학관이 흠족한 것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수광은 문학의 본질에 대하여 주자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결과로써 피력된 앞서 살펴본 그의 견해는 그만큼 시대적 신선감을 갖는 것이라고 하겠다.

2) 문학활동

시나 문장을 짓는 행위 곧 문학활동의 의의를 道學에 비교하여 규정하려 했던 것, 역시 조선왕조 시대 문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수광도 예외는 아니었으니,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魏文帝가 말하기를, “사람의 수명은 어느 때가 되면 다하고, 영화와 즐거움도 자기 한 몸에 그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오고야 마는 정해진 기한이니 문장의 영원·무궁함만 같지 못하다.”라고 했다. 이것은 한갓 문장의 귀중함만 알았지 道學의 귀중함은 모르는 말이다.¹⁹⁾

주자학을 국시로 하였던 조선왕조이었던 만큼,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도리 즉 儒家의 道를 구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도학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정신적 지주가 됨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주자학적 문인

17) 참고, “조선중기시학연구”, 국문학연구 32(서울대 국문학연구회, 1975), pp. 19~38.

18) 箚中之意專在於務實(李睟光, 芝峰集, 卷二十二, 雜著)

19) 魏文帝曰 年壽有時而盡 榮樂止於一身 二者必至之常期 未若文章之無窮 是徒知文章之可貴 而不知道學之尤貴者也(李睟光, 芝峰類說, 卷八, 文章部一, 文)

가운데는 외교나 사교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문장을 전공으로 하는 詞章學에 더욱 치중했던 인물들도 많았지만, 이들에 의해서도 역시 문학활동은 도학에 부수되는 행위로서 ‘餘技’나 ‘小技’라는 주자학적 도덕주의 문학관은 중요시되었다.²⁰⁾ 따라서 문장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위문제의 논평을 반박하고 도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이수광의 上記 언급은, 그 역시 주자학적 도덕주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게 한다. 그러나 이수광은 도학의 귀중함을 주장하였지만 문장을 도학의 부수물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인용문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문장과 도학이 다같이 귀중하다는 생각, 다시 말해서 문장과 도학이 대등관계라는 생각이 제시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다음의 인용문들로써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 a. 우리나라 사람은 성질이 게으르고 느슨하여서 모든 일들을 도무지 착실하게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비록 末葉의 技藝라도 중국인만 같지 못하다. 하물며 문장이겠는가. 비록 조그만 기술이라도 역시 일의 정밀한 것이던 힘을 쓰지 않고도 얻음이 있을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글을 읽지 않고도 능숙하고 근면하지 않으면서도 이룩되기를 바라다면 비록된 생각이다.²¹⁾
- b. 어떤 이는 말하기를, “시는 반드시 전공을 한 뒤에야 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를 잘하는 이는 寒苦困厄한 가운데서 나오는 일이 많다. (中略)”고 하였다. 근세의 일을 말한다면, 이용재·김도재·신기재·정호음·임석천·노소재 같은 이들로 어떤 이는 오래도록 커양함을 했고, 어떤 이는 오래도록 한가히 물러나 있었다. 백광훈·이달·차천로는 모두 寒苦한 데서 나왔다. (中略) 하늘이 이 사람들에게 만약 그들의 몫이 궁핍한 것을 보살펴서, 그들이 (시에) 향할 수 없을 사인을 더하고 보태어 그들로 하여금 궁핍이 심하지 않게 하였다면,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뛰어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²²⁾

20) 전형대 외, 전제서, pp.240~244.

21) 東方人性多懶綏於一切事 都不肯着實 故雖技藝之末 不能如中國人 況文章 雖曰小技 亦業之精者也 非着力有得不可易言 及欲不讀而能之 不動而得之 惑矣 (李睟光, 芝峰類說, 卷八, 文章部一, 文)

22) 或曰 詩必專而後工 故爲工者 多出於寒苦困厄之中(中略) 以近世言之 李容齋 金燕齋 申企齋 鄭湖陰 林石川 盧蘇齋 或久於閑退 白光勳 李達 車天翰 皆出於寒苦(中略) 天於是人 若或相之窮厄其身 增益其所不能向 使

인용문 a에서 이수광은 조그만 기술이라도 온 힘을 기울여야만 이를 수 있는데, 문장은 더욱이 말할 나위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수준에 이른 문장을 쓰려면 글을 읽지 않으면 안되고, 또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좋은 문장은 꾸준히 밀고 나가는 힘(착실)·독서를 통한 지식의 배양(독서)·끊임없는 습작과정(근면)을 통해서 이룩될 수 있다는 견해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인용문 b에서 이수광은 전공으로 해야만 시는 잘 지을 수 있다는 데에 동조하고 있다. 아울러 그럴 수 있는 환경이 한고곤약한 것이라는 데에도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로 이행·김안국·신광한·정사룡·임억령·노수신·백광훈·이달·차천로 같은 유명 시인들을 들고, 이들이 뛰어난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물러나거나 귀양살이하는 환경 또는 애초부터 궁약한 환경을 가졌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경우, 한고곤약 또는 궁약한 환경이란 관직생활을 하는 환경과 상대적인 뜻을 지닌 바, 곧 관리로서의 생활이 아닌 문인으로서의 생활에 몰두할 수 있었던 환경을 뜻한다. 이달을 제외하면 이수광이 예로 들었던 인물들이 한결같이 문인으로서의 생활만 했던 인물들이 아니고 관리와 문인으로서의 생활을 동시에 영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꾸준한 힘이 있어야 하고 지식이 들어 있어야 하고 끊임없는 습작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문학의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할 경우에 가능한 생각이다. 뛰어난 시는 문인으로서의 생활에 몰두하여 시 짓는 일을 전공으로 할 때에 지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문학을 독립적인 가치있는 일로 여길 때 가능한 생각이다. 따라서 인용문 a와 b는 문학활동을 도학의 부수적인 행위로 여겨 ‘餘技’나 ‘小技’로 격하시킨 주자학적 문인들과는 달리 문학 역시 도학만큼 중요하다는 이수광의 생각을 입증시켜 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수광의 이러한 생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다음은 문학활동에 대한 좀더 깊이있는 이수광의 생각이다.

- a. 최경창·이달은 한 때 시 잘하는 사람이었다. (中略) 그러나 天機에 얻은

바 있어서 스스로 조화를 운용하는 공은 적은 것 같다.²³⁾

- b. 세상에서는 함상, 시는 사람을 궁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中略) 혹은나 物象을 아로새기고 天機를 누설하여 조물주의 깊이 꺼리는 바가 된 것이나 아닐까.²⁴⁾

인용문 a와 b는 각각, 최경창·이달의 詩才와 유명한 시인들이 대부분 곤궁한 처지에 있었던 까닭을 논의하는 가운데 문학활동이 천기를 얻어 조화를 운용하고 물상을 아로새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천기는 문자 그대로 하늘의 비밀을 뜻한다. 그러므로 천기를 얻는다함은 우주·자연의 신비를 터득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조화를 운용한다는 것은 터득한 우주·자연의 신비를 문학의 대상으로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아울러 물상을 아로새긴다는 것은 사물을 형상화한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문학활동이 이와 같은 것일진대, 문학의 성패는 우주·자연의 신비나 사물의 진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느냐 함에 달리게 됨은 물론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문학적 대상의 실질이나 실상 곧 진실을 충실하게 표현해 낼 때, 그 문학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광은 창작력으로서 ‘神’을 내세우고 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문장은 氣가 주가 된다고 하였는데 그 실은 오래이다. 유종원은 또 말하기를 문물 짓는 데에는 神과 志가 주가 된다고 하였다. 나는 말한다. 神이라는 것은 변화로워서 헤아릴 수 없음을 말함이다. (中略) 그러므로 나는 단정하여 말한다. 문장은 神을 주로 삼는다.²⁵⁾

‘神’이란 말은 궁구하기 어려운 미묘한 사물의 이치를 뜻한다.²⁶⁾ 그래서 이수광은 “변화로워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학을 논의하는 데 있어 ‘氣’나 ‘志’나 ‘神’이니 하는 것은 시인이나 문

23) 崔慶昌 李達 一時能詩者也 (中略) 然其得於天機 自運造化之功似少(上揭書, 卷九 文章部二, 詩評)

24) 世有恒言 詩能窮人 (中略) 豈非雕鏤物象 漏泄天機 爲造化之所深忌乎(上揭書, 卷八, 文章部一, 文藝)

25) 古人謂文章以氣爲主 其說尙矣 至柳子厚又曰 爲文以神爲主 余以爲神者 變化不測之謂 (中略) 故余斷之曰 文章以神爲主(上揭書, 卷八, 文章部一, 文)

26) 辭海의 ‘神’에 대한 풀이로 “凡事理微妙難窮者 亦曰神(中華書局 刊, 辭海, p.2113)이란 것이 있다.

인의 창작력에 대한 언급인데, 이 가운데 ‘神’은 상상적으로 사물의 생명을 파고 들어 그 정수와 정신을 구체화해내는 힘²⁷⁾이다. 따라서 우주·자연의 신비를 포함해서 문학적 대상의 진실을 충실하게 표현함이 문학의 관건이 된다고 본 이수광이 창작력으로서의 ‘神’을 강조한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하겠다.

이로써 이수광이 주자학적 도덕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 문학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하여 문학활동을 도학하는 것과 대등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보며, 문학활동에 대한 그의 견해 역시 시대적 신선감을 갖는 것이라고 하겠다.

3. 비평의식

1) 창작상의 방향제시

시인이나 작가들이 창작을 하는 데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는 생각이 문학비평의식 가운데의 중요한 하나가 됨은 물론이다. 문학비평은 문학작품에 대한 일종의 자리매김인 바, 자리매김을 하자면 자연스레 작품의 장·단점이 따져지고, 따져진 장·단점은 시인이나 작가들의 차후 작품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수광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

- a. 문장은 본래부터 값이 붙어있지 않으니, 진실로 안식이 뛰어난 이가 아니라면 누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세상의 몽매한 사람들이 제멋대로 雌黃(문장의 가부를 논하는 일: 필자 주)을 함부로 하여, 금과 옥을 보배라 하지 않고 燕石을 보배라고 하는 이가 많다. 그런 까닭에 문장의 어려움은 금이나 옥을 감별하기 보다도 어려운 것이다.²⁸⁾
- b. 시평은 옛 사람이 다하여 거의 남은 것이 없다. 만약 여러 대가들의 시평을 가져다가 깊이 생각하면서 완상하고 탐색한다면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²⁹⁾

27) 전형대 외, 전계서, pp. 269~271.

28) 文章固無定價 苟非具眼 孰能辨之 而世之昧者 妄肆雌黃 不寶金玉 而寶燕石者多矣 故文章之難 知甚於金玉也(李晔光, 芝峰類說, 卷八, 文章部一, 文)

29) 詩評古人盡之 殆無餘蘊 若悉取諸家詩語 深潛玩索 則當有所得(上揭書, 卷九, 文章部二, 詩)

인용문 a는 문학비평의 어려움을 말하는 가운데 비평이 작품을 자리 매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고, 인용문 b는 비평가들이 따져놓은 결과를 적용한다면 창작에 도움되는 바를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창작상의 방향제시라는 비평의식이 이수광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수광이 시인이나 작가들에게 제시한 창작상의 주된 방향은 어떤 것인지, 그 구체적인 논의를 검토해 보자.

- a. 이백의 鳳凰臺詩는, 첫귀와 끝귀는 전적으로 최호의 黃鶴樓詩의 구법을 그대로 습용하였다. (中略) 나는 망령되게 말한다. 이백의 이 시는 잘못 지었다고 말하여도 좋을 것이다.³⁰⁾
- b. 陰鏗의 시에, “큰 강은 고요하나 오히려 물결친다”라고 하였고, 두보의 시에는 “江流는 고요하나 오히려 솟구친다”라고 하였다. 鏗의 시에는 “얇은 구름은 바위가에서 나오고 초승달은 물결 속에서 오른다”라고 하였고, 두시에는 “얇은 구름은 바위 사이에 잠자고, 지가는 달은 물결 속에서 흔들린다”라고 하였다. (中略) 두보가 옛 사람의 작품을 습용함이 이와 같았다.³¹⁾
- c. 李義山(晚唐詩人 李商隱 : 필자 주)의 장편은 가장 어렵고 증벽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세상에서는 항상 註가 없음을 한한다. 대체로 문장을 쓰는 법이 군석하고 어렵고 매끄럽지 않으며, 또 故事를 많이 인용하고 글자를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흠이며 병이어서 본받을 것이 못된다.³²⁾
- d. 글짓는 데에 故事를 인용하여 엮어 붙이는 것으로써 능사를 삼는 것은 문인의 한 병이다.³³⁾

인용문 a와 b는 이수광이 이백과 두보가 옛 시인의 시구를 습용하였

30) 李白鳳凰臺詩 起結兩句 全襲崔顥法 (中略) 余妄謂 李白此詩 雖不作可也(上揭書, 卷九, 文章部二, 詩評)

31) 陰鏗詩 大江靜猶浪 杜詩曰 江流靜猶湧 鏗詩 薄雲岩際出 初月波中上 杜云 薄雲岩際宿 殘月浪中飄 (中略) 老杜祖襲前作如此(上揭書, 卷九, 文章部二, 詩評)

32) 李義山長篇 最險僻難曉 世常恨其無註脚 大抵筆端窳澁 且多用事 而變換文字 爲之故如此 自故疵病不足法也(上揭書, 卷九, 文章部二, 詩評)

33) 余謂爲文而以編綴用事爲能者 乃文人之病也(上揭書, 卷十三, 文章部六, 東詩)

던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고 그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인용문 c는 만당 시인 이상은의 작품이 이해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의 하나가 故事를 많이 인용했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는 글이다. 그리고 인용문 d는 글을 쓰는 데에 故事를 과다하게 인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글이다.

고사를 인용하여 원관념을 보조하는 수사법인 用事는 본래, 도를 가장 명백하게 표현하였기 때문에 문장의 모범이 된다는 경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을 본받자고 하는 宗經精神에서 비롯되었으며 주자학적 문인들이 즐겨 쓰던 표현수단³⁴⁾이다. 따라서 용사는 일종의 의존적인 표현수단인 바, 과다하게 용사에 치중할 때 그 작품은 모방에 흐르기 쉽고, 작품이 모방에 흐르면 흐를수록 문학적 대상이 가지는 진실이 진솔하게 표현되기는 어려운 단점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게 된다. 사람의 성정 및 시대의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본, 무실주의자로서의 이수광에게 이러한 작품세계가 용인될 수 없음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그러기에 그는 앞서의 인용문에서처럼 용사의 과다한 사용을 문장의 병이라 하고, 한시사상 최고의 시인들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시구를 습용한 이백과 두보의 잘못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수광이 습용을 배격하고 과다한 용사의 사용을 경계한 주된 이유는 습용이나 과다한 용사의 사용이 작품의 사실성을 해친다는 데에서 연유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겠다. 그런 뜻에서 다음 예문에 서처럼 事理에 합당한 표현, 인정과 세태를 곡진하게 그려낸 표현이 이수광이 바라는 창작상의 주된 방향이었음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라고 하겠다.

〈백거이전〉에 말하기를 (中略). 아마 그 시가 마을거리의 상말같이 쉽고도 사리에 가깝고 情態를 곡진하게 표현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중시됨이 이와 같았을 것이다.³⁵⁾

34) 전형대 외, 前件서 p.278.

35) 白居易傳曰(中略)蓋其詩如里巷常談平易 近理而曲盡情態 故能取重如此(李晔光, 前揭書, 卷十四, 文章部七, 詩藝)

2) 작품의 이해와 감상

창작상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 대작가적인 측면의 비평의식이라면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돕는 일은 대독자적인 측면의 비평의식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고전비평에 있어서도 창작배경에 대한 일화 및 용사에 대한 해설, 작품의 의미에 대한 설명 등 독자의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에 도움을 준다는 비평의식을 비평가의 성향에 관계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수광도 예외가 아님은 물론이다.

글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은 배우는 자의 큰 병이다. 세상에 전하는 시가 있다. (中略) 역시 잘 비유하였다.³⁶⁾

글을 읽으면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은 큰 병이라는 단적인 주장과, 시를 예로 들고 그 표현이 비유적인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데서 독자의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돕고자 하는 이수광의 비평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던 이수광이 지녔던 이러한 대독자적인 측면에서의 비평의식의 요체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얻어지는 결과는 그의 비평의식의 특징을 드러내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 a. 귀저래사에 말하기를, “만물이 때를 얻은 것을 좋게 여기고, 나의 삶의行休를 느낀다”고 하였다. 만물과 즐거움을 같이 하는 뜻이 있다. 어떤 이가 善이란 글자를 羨(부러워 한다)으로 쓰는 것은 잘못이다. 行休라고 한 것은 그의 문집 가운데 시에, “새 해가 되면 어느덧 50세로구나. 나의 삶도 장차 돌아가 쉬게 되겠지요”라고 한 것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行休의 行이란 장차란 뜻으로서 行休는 장차 그칠다는 말이고, 가고 그칠다는 말이 아니다.³⁷⁾
- b. 李齊賢이 淮安君의 出家한 것을 듣고 지은 시에, “불속의 좋은 옥이요, 물속의 연꽃같은 資質로, 한밤중에 성을 넘어 가버렸네. 기다란 장삼으로

36) 讀書而不知意味, 學者之病也 世傳一詩曰 (中略) 亦善喻也(上揭書, 卷十三, 文章部六, 東詩)

37) 歸去來辭曰 善萬物之得時 感吾生之行休 有與物同樂之意 善字或作羨非 行休云者 以其集中詩 開歲條五十 吾生行歸休 觀之行猶將也 非行之謂也(上揭書, 卷八, 文章部一, 文評)

바꿔 입고 새 面目으로 오니, 아내는 짧은 인연이 다한 것을 울고 있네.” 라고 하였다. 상고하여 보니, 회안대군은 益齋의 동서다. 前朝 때에는 王者가 緇衣(중들이 입는 옷: 필자 주)를 입고 중이 되는 일이 많았으므로 그 시가 이러한 것이다. 半夜에 성을 넘어 갔다는 말은, 佛說을 상고하여 보니, 서가가 왕자의 몸으로 야반에 성을 넘어 나가서 雪山에 들어가 수도하였다고 하였는데, 아마 이것을 인용한 것일 것이다.³⁸⁾

- c. 牧隱의 시에 “요사이 물가가 다 올랐는데, 홀로 나의 문장만은 돈 값이 없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詩書를 공부하였다고 다 군자는 아니다. 公卿과 宰相도 본래 필부에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마 그 당시의 세상을 슬퍼해서 지은 것일 것이다. 상고하여 보니, 공민왕 때에 諫臣이 上言하기를, “아무 벼슬도 하지 않던 자가 갑자기 卿相에 임명되고, 하인이던 자가 함부로 朝官의 班列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³⁹⁾

인용문 a는 이수광이 귀거래사의 한 구절을 예로 들어, 구절 가운데 쓰인 시어의 정확한 뜻을 풀이한 글이다. 즉 ‘行休’라는 시어를 사용한 도연명의 또 다른 시를 근거로 하여 ‘行’의 특수한 뜻을 풀이함으로써 ‘行休’라는 시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인용문 b는 이제현의 시를 예로 들어 시적 대상의 배경 설명과 함께 표현상에 쓰인 용사의 원천을 밝히고 있는 글이다. 즉, 이제현의 동서인 회안대군이 출가한데 따른 사회적 관습과 ‘한 밤중에 성을 넘어 가다(半夜踰城)’라는 용사적 표현의 원천이 佛說에서의 석가모니 고사라는 사실을 밝혀 줌으로써 시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인용문 c는 목은 이색의 시를 예로 들어, 詩意를 이해시키기 위해 작가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38) 李齊賢聞淮安君出家詩曰 火中良玉水中蓮 半夜踰城去杳然 雲衲換來新面目 綠窓啼盡短因緣云云 淮安大君益齋友婿也 前朝時王子多被緇爲僧 故其詩如此 半夜踰城 按佛說釋迦以王子夜半夜踰城 入雪山修道云 盖用此也(上揭書, 卷十三, 文章部六, 東詩)

39) 牧隱詩曰 爾來物價皆騰湧 獨我文章不直錢 又曰 詩書未必皆君子 卿相由來起匹夫 蓋傷時之作也 按恭愍時諫臣上言 白丁驟拜卿相 自隸濫處朝班是矣(上揭書, 上揭文)

따라서 앞의 인용문들은 시어·시구·시의의 정확한 뜻을 독자들에게 이해시켜 작품에 대한 올바른 감상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좋은 예에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시어·시구·시의의 정확한 뜻을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이수광이 문헌적 사실·사회적 관습·사회적 현실 등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수광이 문학은 인간의 성정이나 시대의 모습을 진술하고, 또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사실은 앞서 검토된 바 있다. 그러므로 문학을 이해하거나 감상함에 있어서 문헌적 사실이든 사회적 현실이든 어디까지나 사실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수광에게는 아주 자연스런 것이 된다. 그런 뜻에서 여러가지 사실을 들어 문학의 이해와 감상을 돕고자 한 이수광은 사실 중심의 비평의식을 지녔던 비평가였다고 할 수 있다.

4. 비평의 유형과 내용

1) 원류비평

이수광이 행한 문학비평의 유형과 내용을 살펴 보기에 앞서 한 가지 전제로 할 것은 그를 포함해서 우리의 선인들이 고도로 체계화된 비평 이론을 별도로 전개하지도 않았고, 또 비평 자체도 짙막짙막한 寸評 형식이어서 개인에 따른 특수한 비평의 유형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수광이 행한 비평의 유형은 그만의 독특한 유형이기 보다는 고전비평 일반의 유형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같은 유형의 비평이라도 지향하는 바의 내용으로 그 특징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아 본 논의의 주안점을 이 점에 두고자 함을 밝혀 둔다.

우리의 고전비평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인 비평유형은 源流批評이다. 원류비평은 영향관계의 원류를 가리는 비평으로 우리의 특수한 문학환경에서 비롯된 비평이다. 즉 우리의 한문학 특히 한시가 중국의 그것을 차용한 것인 바, 중국의 시대별 시풍이나 유명 시인의 시풍이 우리의 문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따라서 제작된 작품에 대해서 그 원류를 캐보고자 하는 데에서 성립된 비평이 원류비평인 것이다. 이 원류비평은 다음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수광의

경우에서도 쉽게 확인되는 바다.

- a. 鄭圃隱의 征婦詞에, (中略) 이 사는 끝 글귀는 좋으나, 첫 글귀는 매우 졸렬하여 결코 唐나라의 詩格이 아니다.⁴⁰⁾
- b. 鄭湖陰의 시는 주로 소동파와 황산곡을 배웠는데 만년에 가서는 매우 그들을 업신여기고 매양 樊川과 羲山의 시를 읽었다고 한다. 許荷谷은 젊어서는 소동파를 배웠는데 뒤에는 당음과 이백을 즐겨하였다. (中略) 林石川은 말로는 이백을 배운다고 하면서 항상 樂天集을 읽었다고 한다.⁴¹⁾

포은 정몽주의 정부사라는 글을 비평함에 있어 당나라 시의 격조를 기준으로 삼은 인용문 a와, 정사룡·허봉·임억령의 시풍을 중국 유명 시인들의 시풍에서 그 연원을 찾고자 한 인용문 b는 모두 이수광이 즐겨 쓴 비평의 유형 가운데의 하나가 원류비평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들이다.

그런데, 영향관계의 원류를 단순히 지적하고 끝나지만은 않는 것이 이수광이 행한 원류비평의 특징이다.

- a. (蓬萊 楊士彥이) 일찌기 금강산을 유람하다가 다만 시 한 聯句를 이었으니, “바다는 하늘을 머금어 가서 다하고, 산은 돌을 이고 오는 것이 많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그 아래구를 짓지 못하였다. 당나라 李頰의 시에, “들은 하늘을 머금어 가서 다하고, 산은 漢水를 끼고 와서 깊다”라고 하였다. 말뜻이 비록 공교하나 남의 것을 좇아 그대로 하였다는 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⁴²⁾
- b. 成慵齋가 말하기를 “徐居正의 시는 오로지 韓·陸을 배웠다”고 하였다. 한·육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한은 韓昌黎이고 육은 陸龜蒙이 아닌가고 생각하였다. 뒤에 사가가 손수 抄한 陸集과 그가 스스로 지은 서문을 보니 陸放翁을 지극히 칭찬하였다. 또 말하기를, “방옹의 시는 韓子蒼에게서 나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한은 즉 한자창이란 것을 알겠다. (中

40) 鄭圃隱征婦詞曰(中略)此詞結句佳而起句甚劣 決非唐調矣(上揭書, 上揭文)

41) 鄭湖陰爲詩主蘇黃 晚年甚悔之 每讀樊川羲山 許荷谷少學東坡 後喜唐音李白(中略) 林石川號爲學李白者 而常讀樂天集云(上揭書, 卷十四, 文章部七, 詩藝)

42) (楊蓬萊)嘗遊金剛山 只得一聯曰 海脚天去盡 山戴石來多 竟不能下一句 按唐李頰詩云 野舍天去盡 山夾漢來深 語意雖工 不免蹈襲(上揭書, 卷十三, 文部部六, 東詩)

略) 사가의 충상한 것이 이와 같았으니, 그의 시재가 화려하고 풍부한 작품에 그친 것은 당연하다.⁴³⁾

인용문 a는 양사언이 지은 시구가 당의 이빈이 지은 시구를 도습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고, 인용문 b는 서거정의 시가 화려함에만 치중될 수 밖에 없었던 연원을 밝혀내고 있는 글이다.

남의 글을 도습하는 경우 표현된 문학세계는 작자 자신의 것일 수 없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표현의 참신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작품세계가 화려함에만 치우칠 때 표현하고자 하는 실상이 가려지기 쉽다. 사실 중심의 비평의식을 지녔던 이수광에게 작품의 사실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도습적인 표현이나 극도의 화려한 작품세계가 인용문에서와 같이 비판의 대상이 됨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따라서 이수광의 원류비평은 표현의 참신성·실질 위주의 작품세계를 제고시켜 사실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었다고 하겠다.

2) 비교비평

우리의 고전비평에서 원류비평 못지 않게 일반적으로 쓰인 것이 비교비평이다. 제작된 작품을 다른 것과 견주어서 평가한다는 점에서 원류비평도 비교비평의 속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원류비평은 견준을 통하여 작품의 뿌리를 찾아보자는 것이고, 비교비평은 견준을 통하여 작품의 우열을 가려보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구별될 수 있다.

비교비평에는 작품과 작품의 비교를 통하여 작품의 우열을 평가하거나 시풍이나 문풍의 시대별 비교를 통하여 시풍이나 문풍의 우열을 평가하는 방법이 주종을 이루는 바, 이수광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 a. 陳澹의 시에, “도리어 우습구나. 노니는 사람의 마음 너무도 조급하네. 한번 와서 최고봉에 오르려고 하니”라고 하였다. 鄭道傳의 시에는, “먼 곳을 바라보고자 할 때에는, 다시 더 멀기를 근심하게 되느니, 높은 데 오

43) 成慵齋謂 徐四佳詩專學韓陸 未知韓陸是何人 或疑韓是昌黎 陸是龜蒙 後觀四佳手抄陸集 及其所自爲序 則極贊放翁 又曰放翁之詩出於韓子蒼 乃知韓即子蒼也 (中略) 四佳所尚如此 宜其才止於華瞻而已(上揭書, 卷十四, 文章部七, 詩藝)

를 때에 최고봉에는 오르지 말아요”라고 하였다. 이 두 사람의 시를 보니, 진화의 시는 매우 좋아서 남은 뜻이 없으니, 그가 먼 곳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정도전의 시는 만족할 줄 아는 것 같으나, 前進하기를 탐내어 그칠 줄을 모르다가 마침내 스스로 화를 입었으니, 또한 稱道할 만한 것이 못된다. 李齊賢이 곡령에 올라서 지은 시에는, “뒤에 오던 사람이 눈 앞을 지나감을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 천천히 가도 山頂에 도달할 것이니”라고 하였다. 그의 원대한 기상을 볼 수 있다.⁴⁴⁾

- b. 당나라 사람이 시를 지을 때에는 오로지 뜻과 감흥을 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를 인용한 것이 많지 않다. 송나라 사람이 시를 지을 때에는 오로지 고사를 인용하는 것을 숭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뜻과 감흥은 적다. 소식과 황정건에 이르러서는 또 불교의 용어가 많아서 힘써 新奇하게 되었다. 그것이 詩格에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다. 근세에는 이 폐단이 더욱 심하게 되어, 시 한 편 가운데에 고사를 인용한 것이 반을 넘으니, 옛 사람의 글귀나 말을 표절한 것과 거리가 거의 멀지 않다.⁴⁵⁾

인용문 a는 작품과 작품을 비교하여 평가한 경우이고, 인용문 b는 시 대별 시풍을 비교하여 평가한 경우로서, 이수광이 비교비평의 각 방법을 두루 사용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된다.

그런데 이수광의 이러한 비교비평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그 내용이다. 인용문 a에서 이수광은 비슷한 의경을 보인 진화·정도전·이제현의 시들을 비교·평가함에 있어 작가의 전기적 사실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크게 현달하지 못한 진화의 시나 역신으로 낙인 찍혀 도중에 꺾어버린 정도전의 시를 낮게 평가하면서도 비슷한 의경을 보인 이제현의 시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인용문 b에서 이수광은 당시와 송시를 비교·평가함에 있어 송시가 폄하될 수 밖에 없는 까닭으로 과다한 용사의 폐단을 들고 있다. 과다하게 용사를 하는 것은 표절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44) 陳澹詩曰 選笑遊人心大燥 一來欲上最高峯 鄭道傳詩曰 望欲遠時愁更遠 登高莫上最高峯 觀此兩詩 則陳作太迫無餘味 其不能遠到宜矣 道傳似知足者 而食進不止 卒以自禍 亦不足道也 李齊賢登鷲嶺詩曰 莫俟後來當面過 徐行終亦到山頭 可見其遠大氣象矣(上揭書, 卷十三, 文章部六, 東詩)

45) 唐人作詩專主意興 故用事不多 宋人作詩專尚用事 而意興則少 至於蘇黃又多用佛語 務爲新奇 未知於詩格如何 近世此弊益甚 一篇之中 用事過半 與剽竊古人句語者相去無幾矣(上揭書, 卷九, 文章部二, 詩)

작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작가의 전기적 사실을 동원하는 것은 문학에 대한 본질적 평가로서는 하자가 있는 것이지만 이수광의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사실적 접근이라는 층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학은 인간의 성정을 진솔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수광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다한 용사를 표절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하여 송의 시풍을 편하한 까닭도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남의 표현을 빌어 쓰는 표절의 단계로까지 가면 그 작품세계는 인간 성정의 표현이든 시대의 반영이든 작가 자신의 사실적 세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수광의 비교비평 역시 사실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비교 비평을 통하여 작품의 사실성을 확인하고 있는 다음 예문으로 이러한 판단은 더욱 신빙성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斯文 李遠孫이 銀溪驛에서 지은 시의 한 연구에, “산첩이 독은 울타리들 둘러 싸고 있으니 개와 닭이 적고, 문이 긴 길에 가까이 있으니 말과 소가 피로하다”라고 하였다. 나도 淮陽에서 또한 말하기를, “마위 위의 거친 땅을 개간하여 경지가 적고, 물가의 울타리들은 두어 채 가난한 집이로구나”라고 하였다. 대체로 그 곳은 땅이 험하고 좁아서 산을 개간하여 먹으며, 풍속은 우물을 파지 않고 물가에서 산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⁴⁶⁾

3) 교정비평

교정비평 역시 우리의 고전비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평유형이다. 교정비평은 비평의 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작품에 대한 교정비평과 비평에 대한 교정비평이 그것인데, 어휘·구절·意境 등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제반 요소들의 하자를 가리는 것이 작품에 대한 교정비평이고, 선행 비평의 오류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비평에 대한 교정비평이다.

이수광의 경우, 작품에 대한 교정비평과 비평에 대한 교정비평을 아울러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작품에 대한 교정비평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6) 李斯文遠孫 題銀溪驛一聯曰 峽擁東籬鷄犬少, 門臨長道馬牛殘 余於淮陽亦曰 巖頂菑畬平地小 水邊籬落數家貧 蓋其地險隘 隄山以食 其俗不鑿井臨水以居 故云(上揭書, 上揭文)

- a. 맹호연의 시에 “제주가 없어서 밝은 임금에 버리시네”라고 하니, 明皇이 말하기를, “짐은 일찌기 경을 쓴 일도 없노라”고 하였다. 이백이 호연에게 보낸 시에 말하기를, “홍안 소년으로 軒冕(존귀한 벼슬: 필자 주)을 버리고”라고 하였다. 호연은 본래 벼슬한 일이 없고, 일찌기 벼슬을 버리고 물러와 숨은 일도 없는데, 버렸다는 棄자를 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⁴⁷⁾
- b. 태헌 고경명이 扶餘懷古詩에 말하기를,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溫家の 일 일랑 말하지 마오. 옛 일을 조상하여 봄을 슬퍼하면 머리털 희어지기 쉬울 것음”라고 하였다. 상고하여 보니, <동국사>에 말하기를, “백제의 시조 高溫祚 立하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세계가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부여씨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온을 성으로 하여 쓴 것은 잘못이다.⁴⁸⁾
- c. 당태종의 遼東山詩에 “連山에는 놀란 새 어지럽고 외뿌리를 사이하여 斷猿이 울음 우네”라고 하였다. 단원은 벼를 이루지 않은 원숭이니 斷雁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요에는 본래부터 원숭이가 없다. 그런데 원숭이 운다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중국 사신 董越의 개성부시에 “긴 공중에는 의로운 새가 침몰하였고, 지는 해에는 돌원숭이가 부르짖는다”라고 한 것도 또한 잘못이다.⁴⁹⁾
- d. 劉禹錫의 마름캐는 노래란 시의 주에, “무릉의 풍속에는 매년 가을에 여랑들이 馬湖에 많이 모여 놀면서 마름을 따 손을 대접한다”고 하였다. 대체로 가을이 되면 마름의 모가 익어서 캐서 먹을 만한 것이다. 우리나라 백광훈의 채릉곡에서 “나무 어귀에서 서로 만나 마름 캐러 가노라면, 마름익은 처음 나고 조아기익은 푸르네”라고 하였고, 이달의 시에는 “남호에 마름의 모가 이미 가시를 이루었는데, 3월에 가신 님 가시고 돌아 오지 않네”라고 하였다. 이 두 작품은 (마름을 봄에 캐는 것으로 다루고 있어서) 모두 잘못이다.⁵⁰⁾

47) 孟浩然詩 不才明主棄 明皇以爲 朕未嘗用卿也 李白贈浩然詩乃曰 紅顏棄軒冕 浩然本布衣 未嘗棄官來隱 則棄字未穩(上揭書, 卷十, 文章部三, 唐詩)

48) 高苔軒敬命扶餘懷古詩云 憑君莫話溫家事 吊古傷春易白頭 按東國史曰 百濟始祖高溫祚立 又曰以糸出扶餘 故爲扶餘氏 今以溫爲姓 則誤矣(上揭書, 卷十三, 文章部六, 東詩)

49) 唐太宗遼東山詩曰 連山驚鳥亂 隔岫斷猿吟 斷猿不成群也 斷雁同 但遼固無猿而曰猿吟何也 天使董越開城府詩曰 長空孤鳥沒 落日野猿呼 亦失之矣(上揭書, 卷十, 文章部三, 御製詩)

50) 劉禹錫採菱行註 武陵俗每秋女郎盛遊于馬湖 採菱御客云 蓋至秋而菱角成熟

인용문 a는 맹호연이 벼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시어 ‘棄’字의 사용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글이다. 그리고 인용문 b는 백제의 시조 ‘溫祚’의 성씨를 高氏나 扶餘氏로 보아야함이 더 타당함에도 “부여회고서”에서 溫氏로 표현한 고경명의 착오를 적시한 글이다. 문학이라고 하여 역사적 사실을 곡해하거나 왜곡시켜도 좋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문학의 사실성이 강조될 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충실도는 한층 요구되게 마련이다. 앞서 확인된 바, 문학의 사실성에 치중하고 있는 이수광에게 역사적 사실을 곡해하거나 왜곡한 문학은 사실성을 상실한 문학으로 간주되어 교정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뜻에서 인용문 a와 b는 시어 사용의 정확성을 매개로 하여 문학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교정비평이었다 하겠다.

인용문 c는 원숭이를 실제로 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것을 시의 소재로 다룬 당태종의 ‘요동산시’와 동월의 ‘개성부시’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한 글이다. 그리고 인용문 d는 시의 소재가 된 마름이 가을에 캐서 먹는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봄에 캐는 것으로 표현한 백광훈과 이달 시의 잘못을 지목한 글이다. 문학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이수광 같은 입장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소재가 문학에서 다루어질 때, 그 문학세계는 거짓의 세계로 비쳐지기 쉽다. 또한 소재의 생리나 본질에 대한 무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세계 역시 공허한 세계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수광에게 거짓된 세계나 공허한 세계를 담은 듯한 문학이 사실성을 상실한 문학으로 인정되어 교정의 대상이 됨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 뜻에서 인용문 c와 d는 소재 사용의 실증성을 매개로 하여 역시 문학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교정비평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던 다음으로 비평에 대한 교정비평의 내용을 살펴 보자.

- a. 예전에 한 처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알지 못한다. 자기의 집을 제목으로 한 시에, “주렴 밖에서 파초가 우니 산에 비 오는 것을 알고, 뚝이 산봉우리의 위로 나오니 바다에 바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의 집을 방문하니 바람에 불리는 뚝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시가 실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던 차에 갑자기 작은 뚝이 산봉우리에

可採也 我國白光勳採菱曲曰 相邀渡口採菱去 菱葉初生荇葉青 李遠詩曰 南湖菱角已成刺 三月行人歸未歸 此兩作皆誤(上揭書, 卷十, 文章部三, 古詩)

나타나 보였다. 비로소 그 시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이것으로 본다면 시라는 것은 쉽게 평론할 수 없는 것이다.⁵¹⁾

- b. 이백의 尋雍尊師隱居의 시에, “꽃이 따듯하니 푸른 소가 누웠고 소나무가 높으니 흰 학이 잠자네”라고 하였다. 주에, “푸른 소라고 한 것은 꽃잎 위에 있는 푸른 벌레다. 두 벌레 있어서 蝸牛(달팽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하였다. 나는 말한다. 여기에서 푸른 소라고 한 것은 아마 노자의 고사(노자는 푸른 소를 타고 다녔다: 필자 주)를 인용하며, 존사가 숨어 살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청우가 한가하게 누웠다고 말한 것이다. 주석에 푸른 벌레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⁵²⁾

인용문 a는 시에 대한 비평이 어렵다는 사실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입증한 글인데, 비평이 어려운 까닭을 작품세계의 실제성 여부를 확인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인용문 b는 시어의 뜻풀이를 잘못된 註(작품의 이해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주를 다는 것도 고전에서는 일종의 비평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필자)를 지적하고 교정한 글인데, 바로 문헌적 사실을 통하여 교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용문 a와 b는 가시적인 사실이든 문헌적 사실이든, 문학비평에 있어서는 사실성이 바탕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수광이 행한, 비평에 대한 교정비평 역시 문학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비평이었다고 하겠다.

이수광의 교정비평은 이로써, 사실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줌이 그 특징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4) 심미비평

우리의 고전비평에는 작품의 미감을 중요시 하는 심미비평⁵³⁾도 존재

51) 昔有處士失其名 題詩所居曰 蕉鳴箔外知山雨 帆出峯頭見海風 人有訪其居者 不見風帆以爲非實語 俄見片帆轉出峯頭 乃知其妙 以此言之 詩者不可容易論也(上揭書, 卷九, 文章部二, 詩評)

52) 李白尋雍尊師隱居詩曰 花暖青牛臥 松高白鶴眠 註青牛花葉上青虫也 有兩角如蝸牛故云 余謂青牛盖用老子事 以尊師隱居不出 故青牛閑臥也 註說誤矣(上揭書, 卷十, 文章部三, 唐詩)

53) 서구비평의 심미비평(Theoretical Criticism)과 대비시켜 그에 해당된다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니다. 단지 문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문학자체의 미를 추구하는 것을 주된 방향으로 삼는 비평을 말함이다(전형태 외, 전계서, p.316).

했는 바, 이 경우 意境의 적합성·표현(수사)의 적절성·어휘의 적실성 등 미적 구조를 형성하는 요인이 비평의 대상으로 중시된다.

이수광의 경우에도 심미비평을 찾아볼 수 있다.

- a. (중국 사신 張寧의) 濟川亭에서는, “사방이 비어서 窓戶가 없다”라 하고는, 또 말하기를 “창에 들어오는 바람과 햇빛이 좋다”라고 한 것은 서로 맞지 않는다.⁵⁴⁾
- b. 朴寅亮이 象山尉 張中에게 답하는 시의 서에 말하기를 (中略). 나는 말한다. 인량의 文辭가 비록 좋으나 <小說>의 허탄하고 망령된 말을 인용한 것은 좋지 못하다.⁵⁵⁾

인용문 a는 구를 엮는데 있어서 이치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글이다. 앞의 구에서는 창문이 없다고 해 놓고 뒤의 구에서는 창문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 곧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한시에서는 특히 작품의 미감을 높이기 위하여 구를 엮는 데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한시 작법상 갖추어야 할 對句는 그런 차원에서 마련된 특별한 장치이다. 그러니 이치에 맞지 않게 구를 엮었다는 것은 곧 작품의 미감을 크게 해치는 일이 됨은 물론이다.

인용문 b는 허탄하고 망령된 어휘의 사용 역시 작품의 미감을 해치게 된다는 사실을 은연중 나타내고 있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든지, 허탄하고 망령된 어휘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인용문 a와 b는 사실성이 훼손되면 작품의 미감도 아울러 훼손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수광이 추구한 미학은 사실의 미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그런 뜻에서 이수광의 심미비평도 사실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5. 맺 음 말

그러면 이제까지의 고찰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고 문

54) 張天使寧(中略)且濟川亭 四空無窓戶 而曰 入窓風日好 似未穰(李晬光, 芝峰類說, 卷九, 文章部二, 詩評)

55) 朴寅亮答象山尉張中詩序(中略)余謂寅亮文辭雖好 用小說不徑之語 爲未善(上揭書, 卷八, 文章部一, 東文)

학사적 의의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지봉 이수광의 문학비평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① 이수광은 문학이 사람의 성정이나 시대의 모습을 진술하고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② 이수광은 문학활동에 도학 못지않은 가치를 부여하였는데, 문학이 대상의 실질이나 실상을 다루는 것이라는 데서 그 까닭을 찾을 수 있다.

③ 이수광은 사리에 합당한 표현, 인정과 세태를 곡진하게 반영시키는 표현을 창작자들에게 구하고 있다.

④ 이수광은 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할 때 어디까지나 사실을 토대로 할 것을 독자들에게 구하고 있다.

⑤ 이수광은 원류비평·비교비평·교정비평·심미비평 등 고전비평에서 볼 수 있는 제반 유형을 두루 사용하여 비평활동을 하였지만, 그 주된 내용은 사실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귀일된다.

이상의 결과로써 이수광은 우리의 문학사에서 사실주의적 비평가로서 자리잡을 수 있겠고, 그의 문학비평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이수광의 문학비평은 당시 문학계의 주조를 이루었던 주자학적 도덕주의의 관념적 성격과는 대별되는 시대적 신선감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그의 務實的인 사고체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면, 우리 문학사에서 실학자들의 문학비평을 한 테두리로 묶어볼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② 이수광의 문학비평이 사실주의적 성격으로 일관된 바, 그의 활동 시기인 임진난 직후가 우리 문학사에서 사실주의적 문학세계를 받아시킨 시기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짐쳐볼 수 있다.

③ 이수광의 문학비평적 자료가 거의 전부 '지봉유설'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볼 때, '지봉유설'은 우리 문학사에서 단순한 실학서가 아니라 본격적인 문학비평서로서 평가되어야 마땅함이 확인된다.

끝으로, 이수광 스스로의 작품세계로부터 검증되는 사실성은 그가 우리 문학사에서 사실주의적 비평가로서 자리잡음에 더욱 긴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시를 비롯하여 이수광의 문집에 들어 있는 문학작품을 살펴보는 일이 후일의 과제가 되는 것임을 밝혀 둔다.